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문화다양성 실천과 주체성 형성*

경기지역의 문화소모임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이정은 _성공회대학교

논문요약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가능성을 이주민의 주체성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찾고자 한다.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정치적인 다원주의를 확립하는 것이고 개별 이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인정받는 것이다(Taylor 1994). 이런 점에서 이주민들 스스로가 자치역량(empowerment)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규모 문화활동 모임을 조사하였다. 조사지역은 이주민의 인구 비중이 가장 높으며 도농(都農)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기도로 한정하였다. 경기지역의 14개 문화활동모임의 이주민 16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이주민들은 한국 다문화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활동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이 논문은 이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주요어:** 이주민, 문화다양성, 다문화정책, 경기지역, 자치역량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05)

DOI: <http://dx.doi.org/10.31008/MV.36.4>

1. 문제제기

‘다문화(multi-culture)’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간 실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자아와 타자의 구별과 일치로부터 시작한다(김연숙 2002, 180-188; 김우창 2008). 그래서 현실에서는 한 사회가 그런 차이와 구별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며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동화주의나 통합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지해온 많은 나라들은 다문화주의를 선언하며 그 속에서 정책적 개입의 수준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타민족, 이주민이 사회에 편입될 때 문제의 핵심은 한 사회로의 동화나 포섭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다원주의(political pluralism)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하버마스 1992, 1996). 하지만 단일민족 신화의 획일적인 문화가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다원주의를 분명히 하는 것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한국사회로 이동하는 이주민의 수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타자화의 양상은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2017년 3월 현재, 한국사회의 체류 외국인 규모는 200만 명에 이른다. 재외동포가 76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로 통칭되는 비전문 인력이 27만 명, 결혼이민자가 15만 명, 그리고 유학생이 10만 명 정도이다. 52만 명은 단기방문자이다.¹⁾ 장기체류 외국인 수와 관계없이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는

1) 통계청, 나라지표 ‘체류외국인 현황’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3). 『출입국·

체류 외국인 규모는 그것 자체로 한국이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외국인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그 수는 현재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²⁾

그러나 새로운 이주자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체류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쉽게 변하지 않아 수많은 다문화정책, 다문화사회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다. 정부에서는 5년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세워가며 장기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주외국인에 대해 편견 가득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값싼 노동력’이고, 결혼이주자나 다문화가족, 이주청소년,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소수자들은 나와는 무관하거나 거리를 두고 싶은 외국인일 뿐이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로 동화되고 포섭되어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문화는 ‘정보’라는 이름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한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 당사자들은 이런 한국사회를,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특히 ‘다문화정책의 수혜를 직접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일까? 이 글은 이주민들이 한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참조.

- 2) 이런 관점은 이주민을 출산율이나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므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지만, 노동인구 감소의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는 것 또한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주체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전제 하에, 이 같은 질문에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거나 이주민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주민의 구술이나 인터뷰를 활용한 연구로는 언어소통이 원활한 중국조선족(박우 2011; 이정은 2012)과 탈북민(김종균 2015; 김정애 2016)을 대상으로 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주노동자(이광수 2012) 개인의 삶을 조명하거나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민속문화가 소통되는 양상을 구술면담을 통해 진행한 민속학적 연구(이옥희 2011)는 이 논문의 목적과 일맥상통한다.

이주민의 문화활동과 관련해서는 지역을 사례로, 지자체의 이주민에 대한 지원현황과 운영,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송석원·이소영·김나경 2011; 윤상길 2011). 주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문화활동에 초점을 두는 경우는 문화축제나 여가활동 등에 한정된다(강연희 2009; 김현·장호성 2013). 따라서 이 글은 기존연구 성과 위에서 이벤트성 문화활동이 아닌, 이주민이 중심이 되어 일상생활에서 이주민 간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의 욕망과 역할을 함양해가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주민들에 대한 구술생애사를 진행하는 것은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사회적 맥락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지영임 2014), 다양한 국가로부터 이주해온 이주민들의 경험과 문화적 욕구를 듣는다는 의

미에서 이 글은 간단한 인터뷰 방법을 택하였다.

인터뷰는 다양한 국가로부터 이주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주민들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소규모 문화활동모임을 조사했으며 조사지역은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이 분포해 있는 경기도로 한정했다. 경기지역은 이주외국인의 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고(최경수 외 2016) 서울과 달리 도시와 농촌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런 성격은 이주민 문화활동의 조건과 계층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데에 적합하다. 이 글은 이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이주민의 주체성 향상 전략을 살펴보며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 확산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2. ‘다문화’와 ‘문화다양성’의 차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경부터이다. 서구의 다문화, 다인종 국가와는 성격이 다른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개념적인 검증없이 수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다.³⁾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된 시점은 언제이고 다문화 사회

3)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공동체적 다문화주의, 급진적 다문화주의 등으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다(김은기 2014).

를 위한 제반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문화사회에서 이민족 간 갈등의 지점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다문화사회라고 이미 규정되어 버린 한국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급급한 실정이다. 즉, 선주민과 이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보다 한국사회로의 동화를 위한 다문화정책과 교육에 치중해왔다(전숙자·박은아·최윤정 2005).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가장적인 시각은 이주여성을 한국사회로의 포섭의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다른 이주민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이중적인 틀을 취하게 되었다. 2006년 즈음에 다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이 만들어졌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2009년 12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여성가족부에는 ‘다문화가족과’를 두게 되었다(서운호 2012, 287).

그렇다면,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한국의 다문화정책 사업에서 ‘다문화’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온 것일까?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민족마다 다른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단일의 문화나 언어로 동화시키지 않고 공존시켜 서로 승인·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운동·정책”을 말하며⁴⁾ “사회적 소수집단의 정체성

4) 21세기 정치학대사전. 네이버 지식백과사전(<http://terms.naver.com>, 검색일 2016.12.30).

과 문화적 이해를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일련의 흐름”으로 정의된다(김남국 2005).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활발하여 “문화본질주의에 기초한 안정성, 동질성, 순수성을 넘어 유동성, 다양성, 혼혈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 이미지를 강조한다(하윤수 2009). 또한 “다양한 인종집단의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윤인진 2008, 73)를 일컫기도 한다.

이들 논의에 의하면, 다문화주의란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현 사회에서 공존하게 하는 일련의 이념, 운동, 정책”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민족이나 인종 간 문화적 차이는 언어와 관습, 행위에 대한 일종의 ‘승인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⁵⁾ 이런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Kymlicka 2002), 즉 관용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고자 하지만 결국 이주민의 사회동화에 집중하는 경향을 비판하며 최근에는 “비판적 다문화주의” 논의가 활발하다. 이 관점에서는 기존의 다문화 논의를 재구성하여 다문화 실천이 일어나는 ‘정치적 장소’인 로컬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거나(문재원 2014) 다수-소수 권력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과정에 이주민을 보호

5) 테일러는 다문화주의로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공동체주의에서 차이의 정치는 다수의 정체성으로 동화되는 것을 강요당해온 개인과 집단의 고유한 정체성과 차이를 인정할 것, 그리고 ‘문화적 생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테일러(Taylor 1994) 참조.

나 지원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주체로 본다(한도현 외 2010).

비판적 다문화주의와 유사하면서도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인권의 보편성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 바로 문화다양성 개념이다(서윤호 2012).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 모두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지향하는 다원주의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문화다양성은 다문화 개념에 비해 ‘개인이나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라는 인권의 영역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네스코는 전 세계 문화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이 그 자체로 인정되고 보존될 때에 인류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01년에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을 채택하였다.⁶⁾ 그 후 2005년에 문화다양성 협약으로 약칭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보호와 증진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서 문화적 권리를 타인에 의한 인정이나 승인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인이 가져야 할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한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니까, 다문화는 한 사회 내에서 주류 문화로의

6) 이 선언의 1조에서 문화다양성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문화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집단과 사회의 독특함과 다원성 속에서 구현된다. 생물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과 같이 교류, 혁신, 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동화나 각 문화 간의 충돌, 갈등 발생을 막기 위하여 이민족의 집단적 문화권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문화다양성은 경제 논리나 경쟁 논리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 동질화되거나 약소 문화가 존중·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는 ‘문화주권’에 대한 주장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이 글은 이주민의 주체성 확장을 문화적 권리, 더 나아가 문화 주권에 초점을 두어 ‘문화다양성’ 개념으로 그들의 소모임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바라는 그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결국에는 이주민들 개개인의 문화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이며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틀을 넘어 개인의 주체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3. 이주민 문화활동 조사방법

1) 경기지역의 문화활동 컨소시엄

이 연구는 2013년에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의 일환으로 부천문화재단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다.⁷⁾ 먼

7) 연구과제는 “경기지역의 문화다양성 환경연구: 이주민 지원 사업 및 커뮤니티를 중

저, 이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한 문화다양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주민들은 각 지역에서 어떤 내용의 문화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문화활동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무엇보다도 이주민들이 지역 내의 주인으로서 문화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이 조사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

조사지역은 경기도의 7개 지역인 부천, 성남, 화성, 의정부, 안양, 용인, 오산 등이다.⁸⁾ 7개 지역에서 이주민들 스스로가 만든 자조모임의 기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구하였다. 경기지역 문화활동에 대한 사전정보를 수집하고 이주민들의 문화활동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7개 지역 문화관련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기초현황조사를 하였다.

먼저, 부천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성남시 문화재단, 화성문화재단, 의정부 예술의 전당, 안양문화예술재단, 용인문화재단, 오산문화재단에 이주민들의 자조모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목록 서식을 배포하였다. 각 지역의 재단에서는 다문화센터, 이주노동자센터 등의 협조를 얻어 이주민들의 지역 자조모임 목록을 작성하였다. 지역 자조모임의 기본 현황을 파악한 후에는 조사모임 대상을 선정하

심으로”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이주민 커뮤니티 조사를 수행하였다.

8) 경기도 7개 지역은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경기컨소시엄(이하 경기컨소시엄)’에 참여한 기관들이다.

는 것이 중요하였다. 자조모임은 부천시역에 가장 많은 18개가 있었고 다른 지역은 평균 5개 정도였다. 조사대상 7개 지역에서 50여 개의 자조 모임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각 지역별로 2개의 모임을 선정하여 총 14개의 자조모임을 조사하였다.

2) 심층조사 대상자 선정

심층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조모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련 기관 담당자에게 협조를 구하였다. 문화재단 담당자의 도움으로 지역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자조모임이 새롭게 구성되는 맥락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이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한 모임을 추천받는 형식을 택했다. 기관 담당자들로부터 1차 추천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최종 선정하였다.

첫째, 많은 이주민 모임이 이주여성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대상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노동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다문화센터와 이주노동자센터의 자조모임을 각각 하나씩 선정하였다. 둘째, 국가별 친목모임의 활동이 활발한 국가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규모에 관계없이 유일하거나 특이한 문화활동을 하는 곳이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다문화사업이 대부분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주여성만의 모임이 아닌, 남녀 통합 모임이나 남성들만의 모임은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

〈표 1〉 심층 인터뷰 대상자

사례	성별	직업	모임명	회원	주요활동	출신국
1	남	문화활동가	미안마밴드	5	음악활동	미안마
2	여	다문화강사	행복열매나눔회	15	친목	중국
3	여	다문화센터활동가	캄보디아공동체	15	친목	캄보디아
4	여	전업주부	난타공연팀	10	공연	베트남
5	여	전업주부	한국어교육	15	한국어교육	중국
6	여	방문지도사	다사랑회	20	미술교육	중국
7	여	전업주부			미술음악교육	일본
8	여	다문화강사	중국공동체	10	친목	중국
9	여	다문화활동가	톡투미		이주민멘토	스리랑카
10	여	다문화활동가			이주민멘토	인도네시아
11	여	다문화강사	임브레스	30	친목, 역사	필리핀
12	여	전업주부	하모니	10	연극공연	베트남
13	여	연극인				한국
14	여	다문화강사	태국공동체	20	친목	태국
15	남	노동자	태권도 모임	20	태권도 강습	인도네시아
16	여	다문화센터 활동가	키르기스스탄공동체	30	친목	키르기스스탄

함시키도록 하였다.

이렇게 조사대상이 되는 소모임을 선정한 후, 심층인터뷰는 각 모임의 대표나 회원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자조모임에 대한 문화적 지원이나 그 성격이 지역마다 각각 다르므로 조사모임의 수에 융통성을 발휘하였다. 평균 지역별로 2개의 소모임을 조사하되, 이주민의 문화활동이 가장 활발한 부천지역에서는 3개의 모임을, 아직 문화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용인지역에서는 한 개의 모임을 조사하였다. 조사 설계에 따라 한 개의 모임에서 한 사람을 심층 인

터뷰하고자 하였지만, 모임이 끝난 후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모임에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인터뷰한 경우도 있었다.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 관계기관의 추천 ▷ 문화활동의 다양성 ▷ 단일민족과 통합민족 ▷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양자 통합의 사례이다.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질문은 ①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 ② 모임의 구성과 참여정도 ③ 지역 문화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④ 자조모임의 효과 ⑤ 한국문화와의 융화 가능성 등이다. 이 조사는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 이뤄졌으며 최종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16명의 기초자료는 <표 1>과 같다.

4. 이주민 지역모임의 문화활동

1) 문화활동에의 참여 계기

‘자조모임’이란 이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자조모임을 만들고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국땅에서 정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자조모임은 대체로 국가별로 이뤄졌으며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이주민들 스스로가 힘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서 모임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저도 처음에는 의식을 못했는데, 아, 자조모임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면서 해나가야지, 앉아서 바라기만 해서는 우리한테까지 못 오는 거예요(사례 2).

다문화강사로 활동하는 A(사례 2)는 중국 조선족들의 공동체 모임을 ‘자조모임’으로 소개하였다. 이들은 2주일에 한번 정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의 고충을 서로 나눈다. 공동체 성원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해 먹으며 아이들끼리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주요 목적의 하나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지역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에는 페루, 몽골,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센터에서 장소를 제공해주고 모임 비용 일부를 지원하면서 지속적인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주민들이 자조모임에 참여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싶어도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성남시의 경우는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며 이주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안해내었다. 그것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에 참여자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다. 이것은 이주여성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활동이 많이 있는데 애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이건 유일한 모임이예요, 애를 돌봐주는(사례 4).

전업주부로 어린 두 아이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이주여성에게 공연 연습을 하는 동안 같은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공연준비 과정에 다문화가정의 아이를 돌봐주는 프로그램은 지역의 학교와 연계되어 학생들이 자원봉사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성남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난타공연과 이주민에 대한 미술교육이 특징적이었고 이 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주민들이 가장 많았다. 한국어는 서툴지만 난타 공연을 준비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뭔가 주인공이 된 듯한”(사례 5)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주민들이 이런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난타 공연 준비를 하며 주인공이 된 느낌을 가졌듯이, 미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도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전시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그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그림을 취미로 이제까지 많이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주부니까 가정이 이뤄지면 해야 되는 일이 많고, (중략)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이 여유가 사실 없었어요, 하고 싶어도. (그림 그리기는) 집중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좋아요(사례 7).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자기의 시간. 계발보다는 자기의 시간(사례 6).

이주민들이 자국의 공동체 모임에서 안정감과 위로를 얻는다면, 문화활동에 참여하면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노동공간과 다르게 문화활동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은 한국의 일상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자존감을 높이며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문화활동과 관련 프로그램이 이주민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2) 지역의 문화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지역의 문화활동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지역 센터의 다문화 프로그램과 1년에 한번 정도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다문화축제가 대표적이다. 지역별로는 다문화 프로그램이 있고 그에 대한 참가자들의 호응도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다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들 문화 프로그램은 이주민들에게 어떤 효과와 영향을 주는 것일까?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성남지역의 미술프로그램과 난타공연은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었다. 작품 전시회에는 가족들이 대거 참가하여 엄마의 성과를 자랑스러워했다.⁹⁾

9) 연구진이 조사를 간 날은 “다사랑회” 미술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다문화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이나 동화 구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자신의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에 그들은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자국의 언어를 활용하는 통역봉사활동이나 운동 프로그램,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1박 2일 캠프 등은 이주여성 개인만이 아닌 가족 전체가 참여할 수 있어서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이주민들은 지역의 다문화 프로그램과 진행방식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다문화 프로그램에의 접근성 문제이다. 다문화센터는 이주민들의 거주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고 다문화 프로그램은 평일 낮에만 운영되는 점이 이주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의 일원이면서 곧 이주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조건은 “그림의 떡”이라고 한다.

다문화센터가 있다고 해도 (중략) 줌 잘사는 동네에 있어요. 그림 시간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일을 안 하고 남편이 혼자 벌어서 사는 사람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국 사람도 다 맞벌이 하는데…… 그러니까 센터는 멀고 잘사는 동네에만 있고 프로그램은 다 평일에만 가야되고, 있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사례 2).

다문화정책이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면서 다문화센터를 새

로 건립하게 되었고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주거지와 떨어질 곳에 설립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조건일지 모른다. 그래서 지역 이주민을 위한 센터에의 접근성은 지리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계층적 차이가 있는 다양한 이주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요즘 너무 다문화, 다문화하면서 사업적으로 가다보니까 다문화센터가 있어도 혜택 받는 사람만, 거기 자주 가는 사람만…… 정보도 그렇고,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맨날 일하러 가는데…… (사례 2).

낮 시간에 다문화 센터에서 문화강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특수한’ 계층이라는 것이다. 이런 경제적 조건에 따른 문화적 격차는 단지 이주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에 계층적인 차이가 큰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런 이주민들의 인식은 문화다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 관계자들로부터도 확인된 바 있다. 일부 계층은 다문화사업의 중복 수혜를 받는 반면,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다문화사업의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이주민들을 위한 센터지만, 이주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 일률적인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다.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들의 범주는 매우 다양하지만 지역의 문화 프로그램이 이주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서 다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 국

가별 공동체 모임을 갖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친목을 도모하고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고 아이의 교육문제를 상의할 수 있다.

다 똑같은 프로그램만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관심도 없고, 그냥 다문화 사업이고 일이고 정책이니까 하는 거지, 그걸 깊이 분석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건 드물죠(사례 1).

다문화 엄마라도 해도 어떤 사람은 온 지 10년, 20년 된 사람도 있고 2, 3년 된 사람도 있고. 하지만 교육이나 프로그램 만든 걸 보면 다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엄마들 모여서 뭐 해준다고 하지만 다 거부하는 거예요(사례 2).

사실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이주시기에 따른 문화적 욕구와 필요는 개별 가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런데 이주민들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을 보면 ‘이주민 정책’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주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할 뿐, 그들을 위한 전망이 없는 매우 형식화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동화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이주민들이 먼저 파악하고 있는 듯 했다.

예를 들어 중국공동체 모임의 경우, 대부분이 다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다문화지원센터에도 중국인 자조모임이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그곳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국민들끼리 친목모임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민족 간 네트워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한족과 조선족 간의 미묘한 갈등을 그곳에서까지 느끼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다문화센터가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국어교육인데, 조선족인 자신들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방식에서 이주민들을 행사의 동원 대상으로만 삼는다는 점이다. 지역센터에서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내용을 잘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오라”고만 한단다.

지금 검정고시(반)도 있는데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그냥 전화해서 아무 때나 오라고 해요. 행사 있다고 오라고 하고 설명도 안 해요. (전화벨이 울리자) 이런 식이에요(사례 5).

중국 한족인 B(사례 5)는 한국어가 서툰 아이를 키우며 공부를 하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문화센터에서는 B가 참여하는 모임 이외에도 다른 행사만 있으면 참여하라고 재촉하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이주민을 인터뷰하면서 여러 번 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다문화센터의 관계자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세히 설명

한다고 해도 한국어가 서툰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프로그램의 동원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무척 불쾌할 수 있다.

정기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다문화 프로그램과 달리, 국가별 공동체 모임은 1년에 한번 정도 이뤄지는 지역축제에 참여하면서 자국의 문화를 알리는 것에 만족해하고 있었다. 캄보디아 공동체는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캄보디아 문화를 알리고 다른 국가의 문화도 접할 수 있는 지역의 다문화 축제에 참여하는 것에 긍정적이었다.

그냥 음식 만들면 다 같이 하고 만들고 소개도 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중략) 다문화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캄보디아 음식 판매하고 축제에서 다른 나라 문화를 볼 수 있는 것이 재미있어요(사례 3).

하지만 문제는 행사가 일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친다는 점이다. 그런 행사는 이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한국사회와 관계를 맺을지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자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벤트성이나 실적 올리기 위해서 (중략) 그런 마인드를 이주민도 알거든요. 가놓고 말해서 이 무대에 서면 내가 출연료 얼마 받는다는 마인드로만

출연을 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 사회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중략)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사례 1).

미안마 밴드에서 활동하며 미안마 공동체를 이끄는 C(사례 1)는 미안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은 C는 문화를 통한 교감을 중요시 여기지만 형식만 달리 계속되는 일회성 행사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시민축제에서도 다문화체험 코너가 있지만, 이주민들을 생활인으로 보고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삼으며 참가를 유도하기보다 그들의 문화를 단지 소비하며 일시적인 이벤트로만 끝난다는 것이다.¹⁰⁾ 이주민들이 다문화축제를 통해 한국의 주민들과 만났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로 확대되기를 바랐다.

5. 민간의 문화교류와 이주민의 주체성 강화

1) 지역 주민과의 문화교류

이주민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이주시기와 상관없이

10) 지역축제가 이주민과 원주민의 화합에 영향을 준 사례로는 이정은(2013) 참조.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먼저, 공통적으로 존칭어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한국의 존댓말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들여 잘 하는 것”(사례 8)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존칭어인 “~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것을 버릇없는 태도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이 경우는 존대문화가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국적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매우 큰 점도 이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한국문화의 특징이다. 특히 ‘미국인’으로 상징되는 백인과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이주민들을 대하고 있고, 그런 태도는 한국인과의 거리감을 더 높게 만든다. 실제로 2013년에 조사한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 분석 결과를 보면, 미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은 유럽인, 북한이탈주민, 중국동포, 일본인, 동남아시아인의 순으로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민지선·김두섭 2013, 84).

셋째, 한국은 가족중심 문화가 매우 강하면서 그에 반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며 공공성은 결여되어 있는 점을 이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한국 오니 한국은 반대인 것 같아서. 자기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싱크대도 깨끗하게 닦고 그렇게 하시는데 바깥에 도로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신경도 안 쓰고 …… 누가 껌을 뱉었는지 마는지 신경 안 쓰고 …… (사례 7).

M(사례 7)은 결혼하여 한국으로 온 지 10년이 된 일본인으로 한국과 다른 문화 환경에서 자라서 이런 점이 더욱 두드러진 차이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주민 자조모임은 이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타지에서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이들도 한국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원한다. 선주민과 교류하고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선주민이 가지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주민들의 노력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였다. 기존의 다문화 프로그램이 이주민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주민과 선주민이 같이 만들어나가는 사회를 위해서는 소규모 지역에 기반을 두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기들끼리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목표는 선주민과 이주민의 교류잖아요. 같이 하는 거. 그게 징검다리기가 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지. 다문화에 관심 있고 다문화에 해당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행사하고 박수치고 사진 찍고 끝나버리면, 그 목표가 그냥 녹화하는 거잖아요(사례 1).

누구누구 엄마는 어디서 왔다는데 이상해. (중략)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다 서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거기서 그렇게 살다 왔는데, 다른 건데. (중략) 지금은 항상 결혼이주여성들만 모아 놓

고 어디 놀러가고 뭐 하고…… 무슨 쓸데가 있냐고, 우리끼리만 하면
(사례 6).

선주민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더욱 어렵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또 자고, TV 보
고, 일하고 그러니까 한국인이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없다(사례 1).”
그래서 이들은 이주민들에게도 한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
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K(사례 15)는 주중에는 작
업장과 숙소에서, 주말에는 노동문화센터에서 컴퓨터를 배우거나 동
료들과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안
된 그는 작업장과 센터 말고는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한국인 선생님과 이주민 학생으로 만나는 정도이
다. ‘학생’이나 ‘선생님’이 아닌 지역의 주민으로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이것은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커다란 인식 차이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센터의 프로
그램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국인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다문화로 오신 분들의 아이들도 알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딸이나 아들이 같이 와서 (중략) 나를 지지해
주는 형이 있다, 누나가 있다, 언니가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

감을 가질 수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한국 사회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거죠(센터 프로그램 운영자).

이주민들은 그들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나 편견을 없애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주민들 스스로가 “우선 자신이 외국인이라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하는 편견을 버리는 것이 필요”(사례 6)하다고 했다.

저희는 거의 이런 센터에 나가면 돈 쓰는 게 아니고 항상 지원이 들 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꼭 뭐 다문화가정뿐 아니라 한국에도 저희보다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중략) 저희도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런 것 좀 하고 싶어요(사례 8).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에서 도움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등한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주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주민이나 선주민들에게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보내기 프로그램을 비롯한 많은 지원들을 보며 선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진다는 이야기도 많다. 이주민들 스스로도 이런 “피 주기식 프로그램”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한국(에) 와서 편하게 살고 이런 것은 이 나라 밖에 없어요. 한국 밖에 없어요. 무료 프로그램이 있고, (중략) 그런데 그거는 똑 같은 거예요. (중략) 그렇게 많이 주면 그 사람은 계속 애기인 거예요, 어른 되기 힘들어요. (중략)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외국 친구들은 지금 나가도 소리 낼 수 없어요. 다 약자가 되니까. 불쌍한 사람이 되니까…… (사례 10).

R(사례 10)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이주한 지 10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자신도 언어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지만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이제는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이주여성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관계에서도 주체성을 갖지 못하게 되며 이주민들의 삶의 의지를 키워주지 못한다고 한다. 이들은 선주민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가족과 사회 내에서 먼저 인정을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2) 이주민의 주체성 강화를 위한 노력

이주민들은 스스로가 그들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조모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지역의 센터와 연계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임으로 안양 지역의 '톡투미(Talk to Me)'와 오산지역의 '희망날개' 그리고 '하모니'가

있다. 한국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넘는 이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특투미의 경우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러브인아시아(Love in Asia)>라는 티브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그곳에서 만난 인연으로 만든 자조모임이다. 특투미의 대표인 스리랑카 출신의 이레샤가 받은 상금과 모금활동으로 2013년 2월에 서울의 남영역에 사무실을 열었다.¹¹⁾ 특투미의 회원들은 이주민과 선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통이 편리하고 회원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찾다보니 모임공간이 남영역 근처가 되었다고 한다. ‘모니카’라는 인형을 제작하고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회원들은 지원자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소리를 내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활동가들이 뭔가를 하고 싶지만 기회가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이제는 외국인이 아니고 저는 동네 아줌마고 이 지역을 아는 사람이면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야

11) 특투미는 사무실을 서울의 남영역 근처에 두고 있어서 엄밀하게는 안양지역모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모임 대표의 거주지가 안양이고 재단에서 지역모임으로 소개해준 것이라 안양지역모임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되잖아요. 그러면 와 있는 다문화여성들이나 이주여성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없어요(사례 9).

“자기들이 만드는 자리”, 이것은 타자로부터의 인정이고 존중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다문화 관련 기관들에 대한 중요성보다 지역문화의 중요성, 지역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긴다. 이들은 지역에서 생활하며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서적으로 멘토링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목표이다. 향후에는 지역별로 ‘톡투미’를 만들어서 한국사회와 교류하는 것이 이들이 꿈꾸는 문화활동의 하나이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인정이죠. 어떤 여자든 시집을 오면 그 집 안에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집안에서 인정이 다가 아니잖아요. 나와도 인정받고 싶고 (중략) 가장 필요한 것은 그거죠(사례 10).

오산지역의 문화활동 커뮤니티 수는 적지만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자국의 독특한 문화를 드러내며 매우 적극적이다. 필리핀 공동체 모임인 ‘임브레이스’와 이주민 연극모임인 ‘하모니’는 이주민 스스로 한국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희망날개는 한 달에 한번 모임을 갖는 필리핀 공동체 모임으로 회원은 30명이다. 이 모임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대표는 현재 모임 초기부터 총무를

말았던 J(사례 11)이다. 이들 모임에서는 필리핀의 전통춤을 연습하거나 필리핀 역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이주노동자센터에서 모임을 가지며 모임 때마다 생일파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필리핀 전통무용을 공연할 일이 있으면 참여 한다.

임브레이스(EMBRACE)예요. 의미가 있어요. E는 empower, M은 motivate, B는 banded women, Respecting, Acting, Common, Endeavor. 처음에는 그 이름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름은 한필이예요. 한국, 필리핀. 한필은 보통 통일교에 교회마다 필리핀 이주여성들 모임 한필 가정이라고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꿨어요. 임브레이스로 바꿨어요. 의미를 만들었어요(사례 11).

필리핀 공동체 대표는 주민센터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다른 센터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달리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녀교육과 일, 공동체 운영 등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모임을 운영하는 것은 힘들지만 공동체 모임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다.

힘들지만 우리 필리핀 이주여성 임파워(empower)하고, 우리 유니티(unity), 다른 먼 데 있는 사람은 불러서 같이 먹고 스트레스가 없어요. 우리 멤버 행복해하면 기쁘고 좋아요(사례 11).

이들 필리핀 공동체 모임의 가장 큰 목적은 자신들의 Empower, 즉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단순한 친목도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회원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에서의 삶의 동기를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필리핀의 역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모습이 무척 흥미로웠다. 필자가 방문한 날도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있었는데, 일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서 일요일에 모임을 하고 있었다.

국가별 공동체 모임과 달리, 오산재단의 지원을 받으며 연극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하모니'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연극'을 매개로 소모임을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하모니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12년 다문화연극제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오산연극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인과 작가가 직접 이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이주여성들이 참여하여 서로가 조화를 이룬다는 뜻에서 '하모니'로 이름을 정하였다. 다문화 관련 주제를 정해서 같이 대본을 만들고 대본읽기 연습을 하여 공연한다. 이들은 2012년도에 다문화연극제에서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 모임의 회원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다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친구들을 각자가 데려오면서 부터이다. 다문화센터는 연극모임이 센터 내의 자조조직이길 바랬지만 '하모니'는 오산연극협회 내 동아리로 활동하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다. 하모니의 대표를 맡고 있는 연극인 L(사례 13)은 센터에서 다문화 행사가 있을 때에만 이리저리

불러 다니고 이주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매우 불쾌했다고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연극을 하나의 문화공연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유도 있다고 하였다.

작년에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앉을 공간이 없으니까 피약벌에서 기다렸다가 쓰레기 더미 옆에서 국수인가 단체로 나오는 밥 먹고, 먹을 장소도 마땅치 않으니까 그렇게 먹고 공연을 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한국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겠어요? 아니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연을 올렸으면 가끔 쌀도 주고 이런다고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필요는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뭐 해준 거라고 자꾸 착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사례 13).

자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달리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지역센터에서는 시혜적인 시각이 무척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연극도 하나의 중요한 문화공연인데, 공연은 당연시하면서 이주여성들 개개인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무척이나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하모니는 어떤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시각을 비판하며 주도적으로 문화공연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주민들의 자존감을 높여가고 있었다. 이 연극모임에서 3년 동안 활동해온 이주여성은 연극을 계속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아무래도 우리는 외국 사람이잖아요. 애 교육에 엄청 좋아요. 왜냐면 제가 외국 사람이니까 한국 와서 문화도 모르고 한국말도 잘 못하니까…… 그래도 우리 엄마가 연극도 하고 활동 많이 하니까, 우리 엄마도 외국 사람이지만 할 수 있구나. 처음엔 도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움이 있네요. 우리 애들 다 그러네요. 그래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사례 12).

지금까지 살펴본 3개의 대표적인 문화활동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주민들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자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한국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소개한 내용은 모두 이주여성들이 중심이 된 모임이지만, 국가별 공동체 모임에서도 축구와 같은 스포츠(사례 16)나 전통춤과 같은 문화활동(사례 14)을 통해서 한국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다. 전통문화를 통해 이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국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교감으로 그들의 역량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그들의 문화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으로 해석되었다.

6. 맺으며

이주민들은 지금까지 국내 다문화사업의 대상으로 수동적이며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이주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은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기본적인 덕목일 수 있지만, 그들을 지역에 거주하는 주체가 아닌 객체로 바라볼 때, 선주민과 이주민의 관계는 일정정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주자에 대한 인정에서 더 나아가 주체적인 문화적 역량을 그들의 권리로 확장하기 위한, 즉 이주민들의 문화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때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기지역의 자조모임을 사례로 설명하였다.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욕구에 충실해져 가고 그럴수록 지역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문제의식은 더욱 커가면서 이주민들만의 문화적 역량과 주체성을 향상하기 위한 자조 모임을 조직하게 된다. 앞에서 사례로 든 특투미나 희망날개, 하모니는 모두 한국으로의 이주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지역의 문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이주민 스스로가 문화적 욕구를 표현하고 그 과정에 선주민이 함께 하고 있었다. 특투미는 한국회원으로 인형을 만들고, 희망날개에서는 역사 선생으로, 하모니에서는 연극인과 작가로 이주민과 함께 하고 있었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소통하는 방식은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단절이 아닌 협력

의 방식이었다. 이런 형식이 확대될 때에 이주민과 선주민의 상호 이해와 교류의 조건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글에서 주장하는 문화다양성의 확장은 이주민들 스스로가 인권의 자치역량(empowerment of human rights)을 키워가며 주체성을 강화해갈 때 더욱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주민을 끊임없이 선주민의 문화에 포섭시키고 적응시켜야 할 대상으로 파악한다면, 그들은 늘 불안한 존재, 보호받아야 할 존재,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존재로 남게 된다.

한국사회의 같은 문화에서도 다양성과 차이가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이주민의 주체적 역량을 읽어내고 그들의 권리로 인정하는 데에 많은 부분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역으로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민족·국가 간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고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노력이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한국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을 고민하고 확대해가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마지막으로 경기지역의 문화다양성 환경을 연구한 이 조사의 한계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이주민의 자조모임을 조사하면서 지역 문화재단의 도움을 받은 것은 연구가 진행되는 데에는 필수적인 조건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자체의 관련 기관들의 지원을 받지 않은 자조집단은 배제되었다. 이주민 모임이 유지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상,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들의 문화역량을 확장하기 위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연결된 소모임을 중심으로 조

사하였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해가는 소모임은 제외되었다. 또한 이 조사는 이주민의 문화활동과 욕구에 한정하여 선주민의 욕구와 소통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찾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주민의 문화다양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선주민들에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이 두 가지 문제는 추후 다른 연구를 통해 논의가 확장되기를 바란다. ~~XXXX~~

참고문헌

- 강연희. 2009. “이주민축제의 공연활동: 안산시 세계인의 날을 중심으로.” 『인구교육』 2권 1호, 21-47.
- 김남국. 2005. “다문화 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정치논총』 제45집 4호, 97-121.
- 김우창. 2008. 『정의와 정의의 조건』. 생각의 나무.
- 김연숙. 2002. 『레비나스 타자 윤리학』. 인간사랑.
- 김은기. 2014. “다문화주의에 대한 고찰: 이론적 접근과 국가별 현황.” 윤인진·황정미 엮음. 『한국 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 아연출판부.
- 김정애. 2016. “구술담과 문학치료 활동을 통해 본 탈북민 P씨의 남한 적응 요인과 그 의미.” 『통일인문학』 65집, 171-209.
- 김종근. 2015. “탈북민 구술을 통해 본 북한 민속의례의 변화와 계승.” 『한국민속학』 62, 7-34.

- 김현·장호성. 2013. “다문화사회의 이주민 여가 결정요인과 여가만족도에 대한 연구: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권 4호, 99-113.
- 문재원. 2014. “다문화주의 담론의 재구성에 대한 고찰.”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3권 3호, 161-187.
- 민지선·김두섭. 2013.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36권 4호, 71-94.
- 박우. 2011. “이주민 구술현장 스케치: 한국체류 조선족을 중심으로.” 『구술사 연구』 2(2), 135-149.
- 부천문화재단. 2013. 『경기지역의 문화다양성 환경 연구: 이주민 지원 사업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경기컨소시엄.
- 서윤호. 2012.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다문화법제의 기본개념 분석.” 『일감법학』, Vol.23, 283-321.
- 송석원·이소영·김나경. 2011.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안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제5권 제2호(제10집), 29-62.
- 송영학·이홍균. 2012. “문화 동질성의 공간적 동시성으로서 문화다양성.” 『담론 201』 2012, Vol.15(4), 141-169.
- 윤상길. 2011. “한국의 지역사회와 지역커뮤니케이션의 구조: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39호, 327-365.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 72-103.
- 윤인진·황정미 엮음. 2014. 『한국 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 아연출판부.
- 이광수. 2012. “구술사를 통해 본 방글라데시인 이주 노동자 사골씨의 한국 사회 적용에 미친 요인.” 『코기토』 72호, 231-260.
- 이옥희. 2011. “이주민이 경험하는 민속문화 소통의 현주소와 전망.” 『남도민속연

- 구』 23집. 269-295.
- 이정은. 2012. “‘외국인’과 ‘동포’ 사이의 성원권: 재한조선족 사회의 지위분화에 따른 성원권 획득 전략.” 『경제와사회』 96권. 402-429.
- _____. 2013. “경계의 균열, 공생(共生)의 문화변용: 민족축제 ‘마당’을 통해 본 교토(京都) 히가시쿠조(東九条)의 역사성과 장소성.” 『사회와역사』 97권. 213-249.
- 전숙자·박은아·최윤정. 2005.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이해』. 그린.
- 지영임. 2014. “다문화연구에서 질적방법론의 활용과 가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인간』. 3(2). 79-98.
- 최경수 외. 2016. 『이민현황 및 장기적 영향평가를 통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하윤수. 2009. “미국 다문화교육의 동향과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과교육』 제48권 3호. 117-132.
- 한도현 외. 2010. 『이주노동자들의 권익과 시민공동체』. 백산서당.
- 하버마스, 위르겐(J.Habermas). 2007. 한상진·박영도 옮김.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 나남.
- Taylor, Charles. 1994. *Multicultur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ymlicka, Will. 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Seco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 김리카, 윌. 2010. 『다문화주의 시민권』. 정동진 역. 동명사.

Abstract

Subjectivity Enhancement Strategy of Migrants for the Cultural Diversity in South Korea

Focusing on cultural activities of immigrants in Gyeonggi area

Lee, Jeong-eun

Sungkonghoe Universit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mall-scale cultural activities of migrants, assuming that immigrants are recognized as being a member of Korean society and living in a subjective manner as a basic condition for forming a multi-cultural society. The survey area was limited to Gyeonggi province, where various foreigners are distributed. The Gyeonggi area has the second highest proportion of immigrants after Seoul, and unlike Seoul, the distribution of migrant foreigners has both characteristics of urban and rural areas. Through the vivid voice of immigrants, I examined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 and their strategies for improving their identity. Through this, I sought to improve the autonomous capacity of migrants and expand the cultural diversity of Korean society.

■ **Keyword:** Immigrant, Cultural Diversity, Multi-cultural Policy, Gyeonggi Province, Autonomous Capacity

투고 : 2017/3/31 심사 : 2017/4/18 확정 : 2017/5/16